

2011. 12. 5 제276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12. 5 제276호

문화·디자인

(토막기사) 문화예술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금 창설 (스코틀랜드)

건강·복지

1. 노숙자 거처 마련 등 노숙자 월동계획 시행 (파리)

(토막기사) 대학원생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초등·중학생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 시행 (뉴욕)

(토막기사) 분실물 보관센터에서 보관 중인 새 장난감을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기부 (런던)

(토막기사) 시민건강 증진과 재활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활정보 안내서 발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설 (베를린)

(토막기사)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학교 부지에 건립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싱가포르)

행정·재정

(토막기사) 공원을 대상으로 무료 와이파이(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 (뉴욕)

방재·안전

2. GPS 장치를 장착한 제설차량을 도입해 제설작업의 효율성 제고 (영국 웨스트서식스주)

3. 외국인 대상 방재훈련 실시 (도쿄)

도시환경

4.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겨울에 인공빙하를 조성한 후 여름까지 보존 추진 (몽골 울란바토르市)
 5. 전철 정차 시 발생하는 파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재활용 (미국 필라델피아市)
 6. 녹지와 녹지보전 사업이 주는 혜택과 가치를 사회투자 수익률로 평가 (스코틀랜드)
- (토막기사) 겨울철 애완동물 관리지침 마련 (미국 시카고市)
- (토막기사) 전기자동차 4S 매장 첫 개장 (중국 상하이市)

도시교통

7. 승용차·버스·지하철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추진 (런던)

도시계획·주택

8. ‘시장(市長) 도시재생 펀드’를 조성해 낙후지역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 (런던)
 9. 환경과 역사가 공존하는 ‘레일 코리도’(Rail Corridor) 계획 추진 (싱가포르)
- (토막기사) 공영주택단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싱가포르)
-

문 화 · 디 자 인

문화예술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금 창설 (스코틀랜드)

- 스코틀랜드 정부는 문화예술 기금을 젊은 예술인재를 육성하는 데 쓰기로 하고 ‘젊은 인재 기금’(Young Scots Fund)을 창설해 어린이·청소년 예술문화 교육시설에 향후 4년간 총 5000만 파운드(약 885억 원)를 집중 투자할 계획임. 젊은 예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지역을 포괄하는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임.
- 우선 스털링(Stirling) 지역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국립보전센터에 300만 파운드(약 53억 원) 예산으로 교육시설을 건립해 청소년이 전통적인 건축기술을 교육받도록 할 예정임. 이곳은 전통적인 건축기술을 보전하고 이를 계승할 장인을 육성하는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글래스고에 500만 파운드(약 88억 원)를 지원해 청소년 예술회관을 새롭게 건립함. 청소년 예술회관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합창단, 청소년 댄스팀이 연습과 공연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게 됨.
- 스코틀랜드 문화예술위원회(Creative Scotland)가 이번에 조성된 기금을 관리함. 문화예술위원회는 스코틀랜드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문화유산인 에든버러성(城)에서 에든버러 연극제를 개최해온 기구임. 위원회는 젊은 예술 문화 인재를 육성하면 문화뿐 아니라 창조산업도 발전시켜 스코틀랜드 전체 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함.

(www.bbc.co.uk/news/uk-scotland-scotland-politics-15394585)

건 강 · 복 지

1. 노숙자 거처 마련 등 노숙자 월동계획 시행 (파리)

○ 파리는 노숙자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관과 구청을 개방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노숙자 월동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음. 노숙자 월동계획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냉한기, 동절기, 혹한기의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함.

- 냉한기와 동절기 계획은 파리시장과 일 드 프랑스 지사 소관이고, 혹한기 계획은 경찰청장 소관으로 경찰청장은 노숙자 거처로 사용할 건물을 징발할 수 있음. 각 단계의 시작시점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함.
 - 2009년의 경우 1단계 계획은 낮에는 영상, 밤에는 0~5℃ 사이, 2단계는 낮에는 영하, 밤에는 영하 5~10℃ 사이, 3단계는 낮에 영하, 밤에 영하 10℃ 이하면 시행되었음. 2008년 겨울 이후 동절기 계획은 범국가적으로 실시된 적은 없고 卅 단위로만 실시되었음.
- 노숙자 구호(救護)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파리 의료구급대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전화 115번으로 연락이 오면 구호차량이 출동함. 의료구급대는 냉한기가 시작되자마자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115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력을 총원해 신고전화에 대응함. 2008년에는 37만 5187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를 통해 노숙자들이 정해진 숙소에서 보낸 밤은 137만 3000일에 달함.
 - 구호차량에는 운전기사, 사회복지요원, 간호사가 동승하며 어려움에 처한 노숙자를 발견하기 위해 시내 곳곳을 순찰함. 순찰은 연중 내내 지속되지만 냉한기에 더욱 강화됨. 동절기 계획이 실시되

면 구호차량 수와 순찰시간, 순찰빈도도 늘어남. 市는 순찰지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 4개 민간협회가 운영하는 구호차량이 이를 각각 담당하도록 함. 구호차량은 노숙자 이동 및 긴급 간호 서비스, 음식 및 침낭과 의복 등도 제공하고 하루 총 35대의 구호차량이 투입됨.

- 市는 단계별로 노숙자 거처를 개방할 계획임. 이번 겨울에는 파리 1, 3, 4, 11, 15구청에 550개의 노숙자 숙소를 마련하고 체육관 6개소를 개방할 방침임. 노숙자를 맞이하는 일은 市 사회활동센터 직원들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하게 됨. 협회가 운영하는 노숙자 임시숙소 3개소(1區의 여성 전용 숙소, 10區의 남녀 공용 숙소, 6區의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청소년 전용 숙소)도 마련됨.
- 市는 2014년까지 2000개의 노숙자 숙소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예정임. 우선 올 겨울에는 노숙자 장기체류 숙소와 임시 거처,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청소년 전용 숙소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임. 이들 숙소들은 협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함.
- 市는 중앙정부에 겨울 동안 개방되었던 숙소를 봄에도 계속 개방할 것을 요청함. 나아가 연중 내내 노숙자에게 충분한 숙소를 제공할 것과 노숙자 거처 건립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함. 현재 일 드 프랑스 지역에는 노숙자 수에 비해 노숙자 숙소와 임시 거처가 부족한 실정임.

(www.paris.fr/paris/Portal.lut?page_id=5777&document_type_id=7&document_id=108294&portlet_id=12645)

(www.paris.fr/accueil/actualites-municipales/paris-se-mobilise-pour-l-hiver/rub_9656_actu_108297_port_23785)

(www.paris.fr/pratique/questions-du-jour/a-partir-de-quelle-temperature-de-clenche-t-on-le-plan-grand-froid-a-paris/rub_9634_actu_93370_port_23708)
(www.paris.fr/accueil/societe/plan-grand-froid-des-actes-concrets-pour-les-sdf/rub_9651_actu_108299_port_24616)

대학원생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초등·중학생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초등·중학생의 학업 및 취미활동, 정서 발달 및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지원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Semester of Service’를 시행함. 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초등·중학생의 학습을 지도하고 고등학생에게 진로상담을 해주는 커리어 서비스를 실시함.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311 민원전화를 통해 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는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은 미국 사회에서 안전하고, 학습을 장려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을 밝히고, 7500여 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Lights on Afterschool’ 프로그램을 201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이에 州마다 시행가능한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해 지원금을 주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덜고, 저소득층의 경우 학교교육 외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됨. 교육적 측면뿐 아니라 하교 후 부모나 보호자의 지도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청소년 비행 및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8cb58063ea0e7ae6a62fa24601c789a0/)

(www.afterschoolalliance.org/loa.cfm)

분실물 보관센터에서 보관 중인 새 장난감을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기부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승객이 놓고 내린 분실물 중에서 보관기한을 넘긴 새 장난감을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음. 교통공사는 올 겨울에도 200여 종의 장난감을 선별해 연말연시 저소득층을 돕는 데 앞장서온 구세군에 기부해 이들 장난감이 런던 남부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전달되도록 할 예정임.
- 교통공사의 분실물 보관센터(Lost Property Office)에 접수되는 분실물은 연간 수십만 건에 이르며, 특히 장난감과 어린이 용품이 많음. 분실물 보관센터에서는 새로 구입한 장난감의 경우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도 힘들고 대부분 고가(高價)가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으러 오는 경우도 드물다고 밝힘.
- 보관센터에서는 중고 장난감의 경우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새 장난감이나 기타 어린이용 선물의 경우에는 보통 연말까지 보관한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세군에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기부함. 교통공사는 이러한 기부사업을 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 구세군의 크리스마스 선물 제공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었음.
- 2010/2011년의 경우 교통공사 분실물 보관센터에 접수된 품목은 총 20만 건이 넘으며, 이 중 1/3만 주인이 찾아가고 나머지는 보관센터에서 처분하게 됨. 3개월 이상 보관한 분실물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경매를 통해 판매하며, 경매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보관센터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21649.aspx)

시민건강 증진과 재활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활정보 안내서 발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설 (베를린)

- 베를린市와 브란덴부르크州는 2007년 ‘건강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지역 내 재활

의료기관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를 발간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www.rehaatlas.de)를 개설함.

- 재활은 예방, 치료와 함께 건강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 환자는 신속하고 올바른 재활치료를 통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최소화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조기퇴직이나 영구장애를 피할 수 있음. 이에 市는 브란덴부르크州와 함께 재활의학과 재활치료 분야를 시민건강 증진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잠재력 있는 경제요소로 보고 적극 육성하기로 함.
- 안내서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재활치료의 범위를 정형외과적 질환에서부터 심혈관계, 신경계, 소화기관, 신진대사, 호흡기, 암뿐 아니라 소아·청소년 재활과 알코올, 마약, 게임 등 중독성 질환의 재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류해 안내하고 있음. 또한 치료 후 다양한 재활 가능성, 비용 및 보험처리 여부, 환자의 올바른 재활방법과 재활기관 선택을 위한 조언, 무료 상담센터와 관내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음.
- 재활치료는 다양한 방법과 고가의 비용 등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市는 포털사이트를 이용자의 의견과 경험을 활발하게 상호 교환하는 장으로 운영해 재활의료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수준 높은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할 계획임. 이를 통해 재활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도시 전체의 건강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할 방침임.

(www.berlin.de/sen/guv/presse/archiv/20111115.1405.362562.html)

(www.rehaatlas.de)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학교 부지에 건립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학교시설을 공용(公用)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시설 이용의 극대화와 효율성 증진을 모색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우선 시범사업으로 Farrer Park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Pek Kio 커뮤니티센터를 2013년 상반기까지 건립할 예정임.

- Pek Kio 커뮤니티센터는 4층 건물로 지어지며,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음악실과 댄스 스튜디오 등 학생을 위한 시설도 제공할 예정임. 학교당국은 이들 시설을 활용해 기존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임. 학교에 설치된 기존 배드민턴장과 실내 체육관은 방과 후 주민들에게 개방됨.
-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학교시설과 커뮤니티센터를 분리하는 배리어(Barriers)를 설치해 학교 교육환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교시설의 공용 활용을 통해 학교당국·학생, 지역주민과의 유대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이 사업을 지지함. 향후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http://owencommunity.blogspot.com/2011/03/minister-announced-new-pek-kio.html>)

행 정 · 재 정

공원을 대상으로 무료 와이파이(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 (뉴욕)

- 뉴욕시 공원국은 미국의 대형 통신사인 AT&T의 지원을 받아 관내 5개 자치구에 있는 20개 공원을 대상으로 와이파이(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서비스는 별도의 ID/PW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시는 또한 공원 인근에 무료 충전거치대를 비치해 스마트폰이나 관련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지원함.



(www.nycgovparks.org/sub_your_park/wifi)

방 재 · 안 전

2. GPS 장치를 장착한 제설차량을 도입해 제설작업의 효율성 제고 (영국 웨스트서식스주)

- 영국 남부의 웨스트서식스주는 인공위성 자동 위치추적장치(GPS 장치)를 장착한 제설차량 26대를 새로 도입해 쌓인 눈으로 인한 도로정체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임. 2011년 9월 시범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점검과정이 완료되어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상황임.
- 새로 도입한 제설차량에는 Coldsnap이라는 GPS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제설을 위해 뿌린 소금과 모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제설차량 속도와 방향, 제설제를 뿌릴 때의 차량 속도 등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됨. 또한 제설작업을 완료한 도로와 거리명을 저장해 제설작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임. 제설차량의 위치를 파악해 중복 제설작업을 방지하고 제설작업 시 뿌려진 제설제 양을 조절해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소금의 양도 줄일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때 아닌 폭설로 인해 교통정체는 물론이고 제설작업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밤을 새는 불편을 겪었음. 이에 웨스트서식스시는 제설제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오랫동안 제설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경로를 기록해 제설작업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제설차량을 도입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에 대비하기로 한 것임.



【새롭게 도입한 제설차량】

(www.bbc.co.uk/news/uk-england-sussex-15365821)

(www.westsussex.gov.uk/your_council/news/press_office/press_release_archive/2011/september_2011/new_fleet_of_gritters_get_read.aspx)

3. 외국인 대상 방재훈련 실시 (도쿄)

- 도쿄都 생활문화국은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방재 자원봉사자(외국어 분야) 등을 대상으로 방재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이번 방재훈련은 외국인에게 방재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외국인 재해정보 센터’ 지원체계에 대한 기능 검증을 실시하며, 방재 자원봉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됨. 참가를

희망한 외국인 350여 명을 대상으로 피난 및 긴급구호방법, 소화기 사용 방법, 재해 시 연락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임.

- 외국인 재해정보센터란 도내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都에 설치되는 ‘都 재해대책본부’와 별도로 외국인을 위해 생활문화국 도민생활부에 별도로 설치되는 재해기구임. 이 센터는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구시정촌 등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방재 자원봉사자를 대피소 등에 파견해 외국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외국어 분야 방재 자원봉사자란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도민과 외국인을 말하며, 심사를 거쳐 자원봉사자로 위촉함. 2011년 10월 현재 17개 언어, 93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평상시에도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11/20lbe600.htm)

도 시 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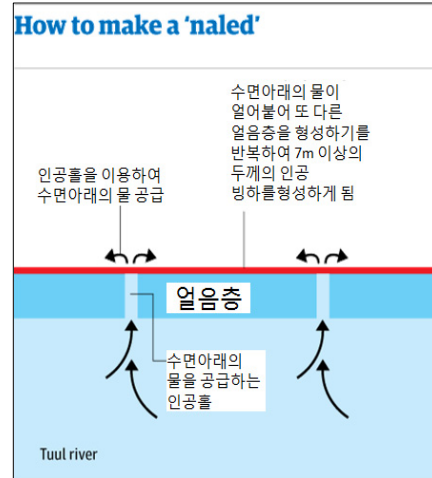
4.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겨울에 인공빙하를 조성한 후 여름까지 보존 추진 (몽골 울란바토르市)

○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市는 겨울에 인공빙하를 조성한 후 여름까지 보존해 시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임. 市는 인공빙하를 만들어 여름까지 보존하면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를 적절히 조절하며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겨울철 도심 여러 곳에 두께가 두꺼운 인공빙하 ‘Naleds’를 조성하기 위해 녹기와 얼기를 반복해 여러 겹의 두꺼운 얼음 층을 만드는 기술을 이용하게 됨. 낮에는 강한 수압의 물이 빙하를 관통해 틈을 만들고, 녹았던 얼음이 밤에 다시 얼기를 반복해 여러 겹의 두꺼운 인공빙하가 만들어지게 됨.

· 빙하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7m 이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며 일반적인 얼음보다 열에 강해 여름철까지 녹지 않을 것으로 기대 됨. Naleds를 이용하는 기술은 북한과 러시아, 알래스카와 같은 지역에서 겨울철 임시로 강에 다리를 만들어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들 때 적용되고 있음.

-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몽골 내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몽골 외에도 겨울에 -5~-20℃의 기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극동 지역의 다른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음.



【울란바토르市에 설치될 인공빙하 이미지(좌),
여러 겹의 얼음 층을 만들기 위해 구멍을 뚫는 방법에 대한 개념도(우)】

(www.guardian.co.uk/environment/2011/nov/15/mongolia-ice-shield-geo-engineering)

5. 전철 정차 시 발생하는 파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재활용 (미국 필라델피아市)

○ 미국 필라델피아市는 전철 정차 시 발생하는 큰 파동에너지를 재활용해 전기에너지로 재생하는 시스템을 시험 운용하는 사업을 새정부로부터 허가받음. 지하철이 정차할 때 발생하는 큰 파동에너지를 지하철에 설치된 배터리에 전기에너지로 저장해 이를 다시 지하철에 공급하거나 다른 지하철노선에 공급하는 시스템임.

- 전기에너지로 재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배터리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임. 市는 승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Market-Frankford 노선에 시범 설치해 재생에너지 사용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임.



【시범사업 노선으로 선정된 Market-Frankford Line】

- 이 시스템을 전체 33개 노선에 적용할 경우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의 4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체 노선에서 발생하는 전력요금이 2000만 달러(약 225억 원)임을 고려할 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시범사업 노선에서는 50만 달러(약 5억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됨. 필라델피아 외에도 미국의 서부지역과 폴란드 바르샤바의 지하철에서도 시험 운용 중임.

(www.abb.com/cawp/seitp202/fe7ae08fb960f281c1257934002701da.aspx)

(www.wired.com/autopia/2010/09/philadelphia-subway-battery-system/)

(http://articles.philly.com/2010-09-01/news/24975385_1_market-frankford-line-septa-pjm-interconnection-llc)

6. 녹지와 녹지보전 사업이 주는 혜택과 가치를 사회투자 수익률로 평가 (스코틀랜드)

- 스코틀랜드의 민간단체인 Greenspace Scotland는 스코틀랜드의 자연과 경관을 관리하는 집행기구인 Scottish Natural Heritage의 지원을 받아 녹지가 주는 혜택을 검증하는 연구조사 사업 ‘녹지가 좋다. 증명해보자!’(Green-space Is Good: So Prove It)를 주민, 지방정부, 보건기관과 함께 시행함.
- Greenspace Scotland는 사회투자 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로 녹지의 장점을 평가·분석하는 방법론을 개발함. 이 방법론으로 10개의 지역 주민단체, 2개의 지방자치단체, 1개의 보건기구와 함께 해당 지역의 녹지와 이를 확충하고 활용하는 각종 활동을 평가해 총 14권의 사회투자 수익률 조사 보고서를 발간함.
 - 이번 연구조사 사업은 녹지 면적이나 생물종 다양성 등 존재가치로만 평가하던 학술 연구에 비해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활동과 녹지의 분포현황 등으로 녹지의 중요성을 증명함. 또한 지역 주민단체와 지방정부가 녹지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실무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냄. 이번 사업은 총 2년에 걸쳐 진행되었음.
- 지역 주민단체들은 해당 지역에서 벌인 녹지보전 활동에 따른 사회적 수익을 평가해 이를 화폐로 환산함으로써 녹지의 가치를 추정함. 이번 평가에서 녹지 보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은 정원 가꾸기 경연대회, 원예학교, 공동체 정원 가꾸기, 걷기 대회, 지역 공원을 활용한 행사, 여름철 지하철에서 개최한 행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공원과 산에서 감시활동을 벌이는 감시원 육성 및 운영사업 등 다양함. 정원 가꾸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Ardler Environment Group의 경우 1파운드(약 1800원) 투자 시 12파운드(약 2만 1000원)의 녹지 보전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이번 조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투자 수익률 조사방법을 쉽게 해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



【Ardler Environment Group이 개최하는
정원 가꾸기 경연대회 모습】

(www.greenspacescotland.org.uk/default.asp?page=583)

(www.greenspacescotland.org.uk/upload/File/SROI%20Programme%20summary%20report.pdf)

(www.greenspacescotland.org.uk/upload/File/ARDLER.pdf)

겨울철 애완동물 관리지침 마련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겨울철 추운 날씨에 애완동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완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음. 애완동물 관리지침은 겨울철에 애완동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날이 추워지면 애완동물이 실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털이 짧은 애완동물은 실내에 있더라도 적절한 옷으로 보온을 해주어야 함.
-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바람이 거셀 경우 애완동물에게 치명적인 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이 적게 불거나 없는 방향으로 애완동물의 집을 옮겨야 함.
- 옥외에 설치된 애완동물의 집은 활동성이 보장될 수 있는 크기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너무 클 경우 보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겨울철에는 차량 엔진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 때문에 차량 아래에 모여드는 애완동물이 많아 차량 출발 전에는 차량 아래를 확인하거나 출발신호를 적절히 보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부동액은 적은 양으로도 애완동물에게 치명적이지만 부동액의 달콤한 맛이 애완동물을 유인하는 경향이 있어 애완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 부동액을 보관하는 지혜가 필요함.
- 애완동물에게 정기적으로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물이 얼어붙지 않았는지 자주 체크함. 가능한 한 금속 소재가 아닌 플라스틱 밥그릇을 제공해 애완동물의 혀가 얼어붙지 않도록 함.
-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뿌려지는 소금이나 화학물질은 개의 발에 치명적이 될 수 있으므로 야외활동 후에는 주의를 필요로 함.

(www.cityofchicago.org/content/city/en/depts/cacc/provdrs/care/news/2010/jan/cold_weather_petcare.html)

전기자동차 4S 매장 첫 개장 (중국 상하이市)

- 중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전기자동차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4S 매장이 상하이市에 개장됨. 4S 매장이란 영업(Sale), 부품 공급(Sparepart), 정비(Service), 시장조사(Survey)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국식 자동차 매장임.
 - 4S 매장 개장의 의미는 전기자동차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기자동차 산업 체인을 완성시켰다는 데 있음. 4S 매장 개장으로 소비자들은 기존의 자동차 매장처럼 다양한 브랜드의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한 자리에서 비교해 구입할 수 있음.
 - 4S 매장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원스톱으로 세금 면제와 보조금 수혜 신청도 할 수 있음. 현재 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최대 6만 위안(약 1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함. 2012년에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공동구매 정책도 실시할 방침임.
 - 市는 또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4S 매장이 위치한 가정區를 비롯해 도시 전역에 전기충전소를 대량 설치할 계획임. 현재 市는 관용차, 공공서비스 차량 등의 부문에 전기자동차를 투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1150억 위안(약 20조 3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우선 2011년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신·재생에너지 차량을 50만 대, 2012년에는 150만 대 이상 생산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 차량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임.
 - 최근 중국에서는 원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대기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차량이 부상하고 있음. 현재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10% 정도의 비용으로 운행할 수 있음.

(www.gov.cn/gzdt/2011-11/26/content_2003860.htm)

(<http://news.xinhua08.com/a/20111127/860944.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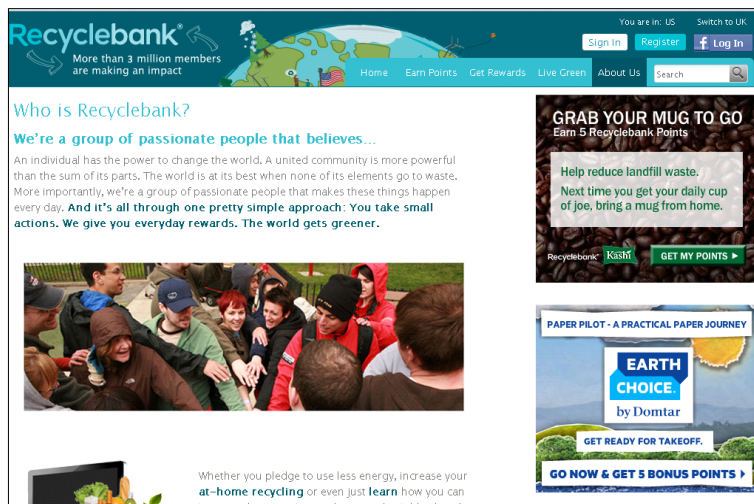
도 시 교 통

7. 승용차·버스·지하철 대신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추진 (런던)

- 런던市와 런던교통공사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대신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기로 함. 市의회도 도보와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적극 환영함. 이 계획은 市의회가 2010년 제기한 걷기 활성화 방안과 일치해 市와 市의회 간 협력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런던 시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여정의 1/4이 도보이지만 걸기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지면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 대한 의존율이 낮아지게 되어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대기오염도 줄이고 시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市의회 교통위원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걷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연구해 2010년 10월 ‘이렇게 걷자’(Walk This Way)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간하기도 함.
- 교통공사는 자원 재활용에 동참하면 각종 할인쿠폰을 제공해 주는 민간회사인 리사이클뱅크(Recyclebank)와 함께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Marks & Spencer와 같은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함. 스마트폰으로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여

정을 등록하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으며, 적립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포인트 제공 사업은 2012년 봄에 시행될 계획으로 2011년 말 시범사업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참가비용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됨. 이 사업은 리사이클뱅크에서 운영해 市 예산이 일체 들어가지 않아 최소 비용으로 환경과 교통을 모두 살리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리사이클뱅크는 일반시민, 기업체 등 3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www.recyclebank.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머그컵을 사용하면 5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일반 시민들이 가정 등에서 재활용을 하는 작은 행동에 대해 포인트를 제공하고 제품을 사는 데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환경 정보 관련 기업임. 재활용 포인트 제도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포인트 제공사업도 담당하게 됨.



【리사이클뱅크 홈페이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머그컵 이용 시 5포인트 제공’ 배너가 있음)】

(www.london.gov.uk/who-runs-london/the-london-assembly/publications/transport/walk-this-way)

(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Mayor's%20response%20to%20Walk%20this%20Way%20report%20Jan%202011.rtf)

(www.sustainablelifemedia.com/press/recyclebank-and-transport-london-partner-reward-people-biking-and-walking)

도시계획 · 주택

8. ‘시장(市長) 도시재생 펀드’를 조성해 낙후지역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 (런던)

○ 런던시는 침체된 지역과 중심가를 장기적으로 재생 및 활성화하기 위해 7000만 파운드(약 1240억 원)의 ‘시장(市長) 도시재생 펀드’(Mayor’s Regeneration Fund)를 조성해 런던 내 지방자치단체 중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에 집중 투자할 방침임. 중앙정부에서도 2000만 파운드(약 350억 원)를 지원할 예정임. 시는 이 펀드를 통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시는 먼저 크로이던(Croydon)과 토트넘(Tottenham)에 이 펀드를 투자하기로 최근 결정함.

- 크로이던 지역은 오랜 기간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되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간 개선, 보행 지원 인프라 구축, 비어 있는 건물 이용 활성화, 필요에 부합하는 사무·상업공간 조성, 수요

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공간에 주택단지 조성, 버려진 도심지역 재개발 등을 추진해 도시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계획임.

- 현재 市는 크로이던 지역의 재생을 위해 2300만 파운드(약 410억 원)의 펀드를 투자함. 크로이던 자치구와 다양한 민간 투자자도 7000만 파운드(약 124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함께 투자함. 市는 이 자금을 향후 2~3년간 이 지역을 일하고 살기 좋은 도심지역으로 변화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임.



【펀드가 투자되는 크로이던 러스킨 광장의 현재 모습(좌)과 개발 후 이미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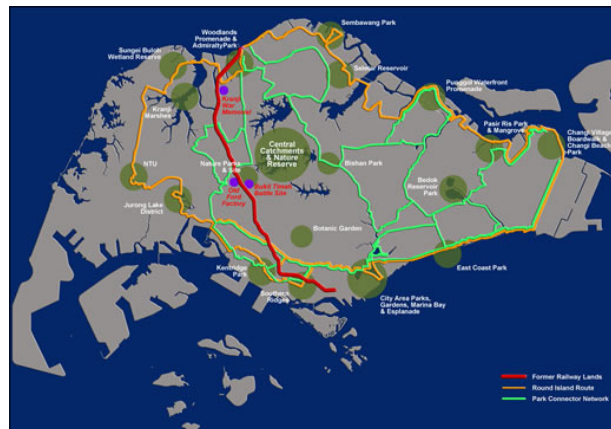
(www.london.gov.uk/priorities/business-economy/investing-future/mayors-regeneration-fund)

9. 환경과 역사가 공존하는 ‘레일 코리도’(Rail Corridor) 계획 추진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약 26km 길이의 구(舊)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을 환경과 역사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임. 개발당국은 철도부지를 따라 대규모 공원과 연계된 환경 네트워크를 150km에 걸쳐 조성할 예정임. 정부는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

해 ‘Re-imagining the Rail Corridor’ 디자인 워크숍, ‘Re-imagining the Rail Corridor’ 전시회 등을 개최함.

- 환경과 역사가 공존하는 레일 코리도 계획은 뉴욕의 ‘the High Line’ 과 파리의 ‘the Promenade Plantée’ 등 성공적인 해외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철로를 따라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환경과 역사도 융합·보전하는 개발계획임. 이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에게 야외활동과 여가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그동안 철도로 인해 접근이 힘들었던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레일 코리도 계획이 시행되면 싱가포르 중심부의 탄종 파가 지역 으로부터 서쪽의 부키티마 지역의 자연보호구역까지 도로 등의 장애 없이 통행할 수 있음. 또한 레일 코리도를 따라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Ford Factory, Bukit Timah battle site, the Kranji War Memorial과 같은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둘러볼 수 있음.





(www.ura.gov.sg/railcorridor/)

공영주택단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싱가포르)

–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Housing Development Board)은 공영주택단지(HDB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HDB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함. 국가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된 이 로드맵은 HDB 마을 주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고려해 주택개발청의 향후 5년 및 10년간의 핵심전략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음. 로드맵의 3대 핵심전략은 ① 잘 설계된 마을(Well-designed Towns), ② 지속 가능한 마을(Sustainable Towns), ③ 지역사회 중심 마을(Community-centric Towns)임.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잘 설계된 마을: 우수한 디자인은 HDB 마을에 가치를 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 주택개발청은 아파트 설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건축사를 참여시키고 있음. 로드맵에 따르면 주택개발청은 마스터플랜과 도시디

자인을 총괄하고, 외부 컨설턴트에게 비전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② 지속 가능한 마을: 주택개발청은 지속 가능한 마을에 적합한 녹색사업과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에너지, 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로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③ 지역사회 중심 마을: 앞의 두 전략은 공공주택의 하드웨어적인 요소에 해당됨.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만으로는 활기차고 매력적인 마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활기차고 유연한 커뮤니티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감을 고취하도록 해야 함.

(www.hdb.gov.sg/fi10/fi10296p.nsf/PressReleases/1B9EA15B6DF40D314825793E0014972E?OpenDocument)